

##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삶\* -해석학적 분석-

강현숙<sup>1)</sup> · 고금지<sup>2)</sup> · 김원옥<sup>3)</sup> · 김은심<sup>4)</sup> · 김순용<sup>5)</sup> · 김현리<sup>6)</sup> · 신순옥<sup>7)</sup>  
오상은<sup>8)</sup> · 원정숙<sup>3)</sup> · 이춘옥<sup>9)</sup> · 정민<sup>2)</sup> · 최남희<sup>10)</sup>

### I. 서론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가족의 가치가 개인의 가치보다 우선하고, 효라는 윤리적 원칙이 가족관계의 근본원리를 이루는 가족주의가 특징이다(권중돈, 1995; 박민자, 1994). 현대사회 속의 한국가족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관념 및 가부장제의 전통과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실제 가족은 핵가족화 현상 및 개인주의와 같은 변화과정에 있다(조홍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 1998).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족은 가족지향적이고 노부모를 부양하려는 의식이 다른 국민들에 비해서 강하고(봉민규, 1997) 장유유서, 효부열녀 등을 강조하며 며느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아내도록 강요하고 며느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간호학에서 치매노인 며느리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간호의 기본 성질과 관계가 있다. 본 연구자들이 합의한 바에 의하면 간호란 삶의 지향성이 왜곡되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최남희, 1992)이므로 삶의 지향성이 왜곡되는 상황은 간호학적 접근을 요구한다. 삶이 왜곡되는 현상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상황은 바로 삶이 왜곡되는 현

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김귀분, 이경희, 1998; 홍여신, 이선자, 박현애, 조남옥, 오진주, 1995). 이러한 간호의 속성 때문에 간호학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는 자신의 개인적 의지나 선택과 무관하게 자신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왜곡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며느리의 삶은 바로 실존을 지향하는 간호의 대상인 것이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부양자인 며느리의 왜곡된 삶에 대한 간호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며느리가 내재적인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고 주체적 자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가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일상생활 속에 내재해 있는 간호현상이며,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삶의 현상 또한 그 중요한 부분이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왜곡된 삶에 따른 간호학적 요구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 사회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된 책임은 주로 며느리가 지고 있으며(권중돈, 1995; 변용찬, 1997; 조홍식, 김홍식, 김혜란, 신은주, 1998; 이성희, 권중돈, 1993) 가정의 영역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문화적 규정에 따라 며느리는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일차 해석학적 연구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다.  
1) 경희대학교 의대 간호학과 교수  
2) 한라대학 간호과 교수(jm@roebuck.halla.c.ac.kr)  
3) 경희 간호전문대학 교수  
4)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eskim@gshp.gsnu.ac.kr)  
5)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soonkchim@chollian.net)  
6) 충남대 간호학과 부교수(hlkim@chungnam.ac.kr)  
7) 영동전문대학 교수  
8) 전남대 간호학과 교수  
9) 중화민국 연변의학원 교수  
10) 서울여자 간호대학 교수(jamia@nuri.net)

여성으로서의 영구불변한 역할 즉 양육, 재생산 역할과 동시에 치매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떠맡고 있어 역할가중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가족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위배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자기문제를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킬 수 없고 침묵집단으로 남아야 한다(김진명, 1995).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념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며느리는 주체적 자아와 사회적 관념의 어긋남에 따른 갈등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며느리의 갈등은 일차적으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나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갈등, 그리고 자신과의 갈등으로까지 깊어지는 것이다.

연구과정에서도 초기면담에서 자신을 포장하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가족관계를 드러내기를 꺼려하여 낮은 면담자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이 금지된 상황에서 침묵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헤매는 것은 삶의 지향성이 왜곡되는 현상으로서 중요한 간호학적 문제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간호주체인 연구자와 참여자인 치매노인 며느리와의 동등한 관계, 비권위적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가 자기해방을 실천하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과정에서의 연구참여는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삶의 의미를 추체험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 II. 문헌 고찰

### 1. 며느리의 삶과 치매노인 돌봄 경험.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고, 낯선 타자간의 생활에서 의미 있는 타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어간다. 한국 가족에서 부부관계의 형태는 개인주의와 남녀평등에 대한 이념,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화 되고 서구화되므로써 부부중심 가족을 탄생시켰다(오윤자, 1994). 그러나 실질적인 가족관계는 여전히 가부장적이어서 한국의 부부중심 가족은 의미보다는 단지 구조상의 소가족화에 불과하다(박민자, 1994; 이광규, 1985)

전통적으로 한국의 며느리는 모든 가족의 지위에서 최하위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순간의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감시의 대상이었다. 또한 남성은 자신의 역할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에게 언제나 명령을 내리며 그 역

의 경우는 없다(김진명, 1995). 가족 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족이 66.3%이고 부부 자녀 양친으로 이루어진 3세대 가족은 12.2%의 낮은 비율로 196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통계청 자료, 1992). 따라서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관념과 핵가족화에 따른 현상 속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1991년도 여성개발원의 상담자료 통계에 의하면 고부관계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17%이상 차지하고 있어(박민자, 1994) 고부간의 갈등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진명(1995)의 연구를 보면, 며느리가 상업에 종사하면서 실업자인 남편과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40대의 여성이 시부모에게 역으로 시집살이를 시킨 사례를 통해 며느리가 시부모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와 전통적 관념사이의 갈등 속에서 현대를 사는 며느리의 주체적 자아를 드러내고 있다. 말하자면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따른 부담의 저변에는 시대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전통적 관념에 따른 며느리로서의 삶과 현대화에 따른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자아로서의 삶 간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 내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도 성 역할의 구분이 뚜렷한 우리 문화권에서는 부양책임이 있는(변용찬, 1997; 이성희 등, 1993) 여성이 부양을 전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권중돈(1994)의 연구에 의하면 관습적으로 며느리가 친부모보다 시부모에 대한 책임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치매노인을 돌봄에 있어서 치매노인 부양의 일차적 책임자로 며느리(42.7%), 딸(22.3%), 부인(21.4%) 등 순으로 며느리가 가장 많다고 나타나 대부분 며느리가 돌보는 책임을 떠맡고 있다.

이와 같이 며느리가 노인을 돌보는 것은 사회적 기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흔히 며느리와 다른 가족 구성원 즉 남편, 시댁 식구들, 시부모 등과의 부정적인 가족관계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가족 내 인간관계의 부정적 변화는 가족구조와 기능적인 가족생활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확산되며 이때 누구보다도 남편과의 관계형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치매노인 돌봄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Simonton(1987)과 Houlihan(1987)은 치매노인 돌보기란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가족에게는 매우 어려운 역할로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동안 정서적 긴장, 혹은 신체적 건강문제가 따른다고 하였고 Pratt, Schmall, Wright(1985)와 Wilson(1995)은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것이 가족의 건강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양영희

(1992)는 만성입원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역할스트레스와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원의 역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환자의 일상활동 정도로서 환자의 일상활동능력이 증을수록, 가족원의 역할스트레스는 낮았고, 가족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관계의 질과 가족원의 역할 스트레스였다. 즉 관계의 질이 증을수록, 가족원의 역할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건강은 좋았다'고 하였다. 홍여신 등(1995)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이 경험하는 증상으로 신체적 측면에서는 피로를 정신적 측면에서는 불안과 긴장, 기분의 침체, 또는 스트레스를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생활장애, 수치심, 주위의 비난, 죄책감 등을 들었다.

또한 Prunchno와 Potashnik(1989)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구성원이 치매성 질환을 앓을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성치매환자의 돌봄 경험을 문화기술지로 연구한 김귀분, 이경희(1998)는 치매돌봄 경험을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반응이 끊임없이 전환하는 순환 체계라고 기술하였다. 유은정, 하양숙(1995)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긴장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복지 지지적 측면에서 정책적 배려가 요망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치매노인가족의 대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주요 돌봄자인 며느리의 삶에 대해 접근함으로써 며느리 자신이 내재적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고 주체적 자아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과정에 동참하며 나아가 며느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하였다.

## 2. 해석학적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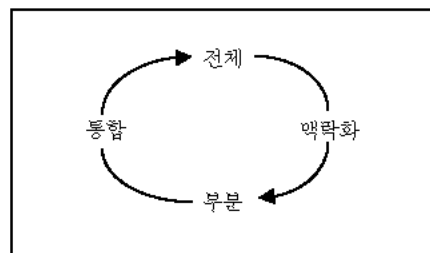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근본적으로 해석학은 방법을 거부한다. 얇은 방법적 절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이해를 통해서 통합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김종국, 1998b; Bontekoe, 1996; Gadamer, 1989)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인정하면서 그 차이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해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해석학적인 탐구과정은 그 절차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철학적 원리들이 중요하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진정한 성공적인 해석적 과정의 결과는 실천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전체적으로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al Circle)을 통해서 일어난다(최남희, 1992; Bontekoe, 1996). 해석학적 순환의 구조를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은 프리드리히 슈라이어하머(Friedrich Schleiermacher)였지만, 현대적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순환구조로의 전개에 기여한 사람은 프리드리히 아스트(Friedrich Ast)이다. 해석학적 순환을 이용한 탐구의 순환은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해석학적 순환구조를 본테코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Bontecoe, 1996). 첫째 탐구주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지속적인 축적, 둘째 새로운 정보의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의 과정이 곧 해석학적 순환이다.

### 2. 해석학적 순환과 이해의 거리두기 (interpretation-distanciation)

해석학적 순환은 부분적 정보 또는 단서들이 통합되어 전체를 이루며 전체는 다시 부분으로 맥락적으로 이어진다. 그것의 표는 다음과 같다(Bontecoe, 1996).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이와 똑 같은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순환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에서의 순환이 일어나는 동시에 연구자들 사이의 이해의 순환이 일어난다. 이 두 순환은 서로 또 다른 순환을 촉발시켜서 더 큰 의미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순환의 전개과정에서 연구자는 자기의 선입견을 배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테코의 말처럼 사물은 그 자체로 자명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독특한 시각을 통해서만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석학적 순환은 서로 다른 두 세계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지칭하고 변증법적으로 전개된다.

해석학적 순환은 이해-거리두기의 원리를 따른다(Gadamer, 1989). 이해와 거리두기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유형으로 확인된다(최남희, 1992; Allen and Louise, 1990).

첫째, 말로 표현된 의미, 둘째,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표현된 의미의 차이, 셋째, 듣는 이의 의미해석과 표현된 의미의 차이, 넷째, 의미의 해방이다. 이때 의미의 해방은 서로 다른 두 사람 또는 세계가 의미의 영역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학적 연구의 중요한 텍스트는 언어적 텍스트이다. 언어적 텍스트는 다양한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해석학은 이야기(narrative)와 줄거리가 있는 소설을 중요한 텍스트로 간주한다(Ricoeur, 1984)

이야기편담은 연구 참여자가 제공하는 줄거리가 중요하고 그 때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도 역시 연구 참여자이다 연구자는 화제를 함께 선정하지만 구성과 줄거리를 연구참여자에게 일임한다. 화자(연구 참여자)의 삶의 배경에 따라 선택되는 줄거리의 전개와 언어의 배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 3. 해석학적 이야기자료의 분석

이야기는 시간적 즉 역사적 산물이다. 이야기 편담은 개별적인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야기 편담은 담론의 형식을 갖는다(Mishler, 1986) 편담동안 연구자와 참여자는 참여자가 구성한 이야기를 함께 해석한다. 연구자는 참여자로 하여금 자기 탐색을 촉진한다. 이야기 분석의 수준은 세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구조(syntax), 의미(semantic), 말의 쓰임(pragmatic)의 측면이다(Mishler, 1986). 본 연구는 이러한 이야기분석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해석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Diekelman의 해석 단계를 참고로 하였다.

해석학적 원리를 응용한 해석과정은 다음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남희, 1998).

- 첫째, 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선이해
  - 둘째, 해석학적 거리두기의 실행
  - 셋째, 연구자와 텍스트, 연구자와 참여자, 참여자와 텍스트 사이의 거리 줄이기
  - 넷째, 새로운 의미의 출현; 지평의 융합
- 이상의 해석학적 원리의 구체적인 실험은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Diekelman, Allen, Tanner, 1989)

1단계, 텍스트의 전체적인 조사를 위한 기록의 읽기

- 2단계, 기록의 부분들을 읽고 요약하고 범주확인하기
- 3단계, 연구자들이 각각의 텍스트의 독자적 분석; 유사성과 차이점의 확인
- 4단계, 관련 주제의 확인- 모순과 갈등의 노출
- 5단계, 해석과 구성의 양상 출현
- 6단계, 정당한 근거가 될 발췌문을 포함한 보고서의 작성

위의 절차는 절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탐구의 주제와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탄력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로서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3명으로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거주지는 서울 6명, 광주 2명, 강릉 1명, 진주 1명, 대전 1명 제주 2명이었다. 연령 분포는 35세에서 60세였으며 돌봄의 기간은 3-7년이었다. 치매노인의 성별은 여자가 12명, 남자가 1명이었고, 연령 분포는 68세에서 84였다.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담한 내용은 연구자료로만 사용하였다.

### 2. 자료수집과정

연구자 각자가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연구참여자와 치매노인을 돌보는 경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편담으로 실시하였다. 편담은 연구목적과 익명성의 보장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진행하였다. 녹음된 편담의 내용을 필사하여 텍스트로 전환하였다. 텍스트를 연구자들이 나누어 갖고 각 자료를 해석한 후 월 1회씩 모임을 갖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논의의 결과에 따라 두 번째 편담부터는 가족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리고 토론에서 부족했다고 합의된 주제를 다음의 편담시 편담스케줄에 첨가하였다.

1998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야기 편담을 진행하였으며 각 참여자의 편담 횟수는 3-4회였다.

### 3. 자료 정리 및 해석과정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삶에 대한 해석학적 이

해에 도달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집단작업을 통해 해석학적 순환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삶에 관심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논의를 통해 개인의 독단성을 배제하고 가능한 공동의 합의에 이르고자 하였다. 자료 정리 및 해석의 과정은 Diekelman 등(1988)가 제시한 6단계를 참고로 하였다.

면담결과와 기록된 자료를 연구자들끼리 나누어 갖고 각 자료에 대한 해석을 한 후 월 1회씩 10회 모이면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각자 자료에 대해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공동논의를 하였고, 다시 각자 재해석을 한 후 만나서 논의를 거치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작업이 지속되었다.

자료의 해석과정은 면담자료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고 자료에 나타나는 의미 있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을 꼼꼼히 읽어 나가면서 며느리가 의미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전체자료 안에서 같은 의미로 이어지는가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치매며느리의 이야기 속에서 의미 있게 드러나는 현상이 그가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상황 안에 놓여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해석학적 순환의 궁극적 목적은 실질적으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는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들의 시각의 다양성에 따라 많은 논란의 과정을 감수하면서 연구자 개인의 편견이 극복되었고 공동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연구참여자와의 공동해석을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 IV. 해석학적 분석의 결과 및 논의

##### 1. 죄책감과 분노(양가감정)

치매 노인을 모시는 것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라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 관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기대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 대상자들과의 면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요. ...때로는 힘들고 욕어도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요. 이제 그러니까 아, 북쌍하다 짜지않게 가는 건은... 그래도 ‘할려느리요, hospice care’를 내손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한편 딸며느리는 아나나 큰 시숙이 타계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치매 노인을 모시게 된 딸며느리도 자신의 역할을 ‘어차피 이것은 나의 몫이다. 어차피 아버님은 내가 봐드려야 하나까. 이런 마음으로...’라고 며느리의 역할을 스스로 내면화시키기도 하고, 의료인인 경우 더욱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치매 노인을 기능적으로 훈련시키는 사례도 있어 자신의 전문적 경험이 치매노인의 돌봄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설에 보내지 않고 임종의 순간까지 시모를 돌보아드렸다는 며느리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몇몇하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머니를 양노원에 모시자고 했을 때 그렇게 안하고 사망한 날까지 내 손으로 거둔게 참 장했다고 생각해. 77에서 치매노인 버리고, 구박하는 것이 나오면 ‘오래 나쁜 사람’이라는 말도 할 수 있은게. 시설에 보냈더라면 어떻게 자식 앞에서, 남편 앞에서 그것을 보겠어”

또한 모든 것을 체념하고 힘든 생활이지만 효도로 의무를 다하는 며느리로서 자신을 달래며 가족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어쩌면 나를 위하여 (시설에) 안 보냈을 수도 있었어...”

“보냈더라면 나는 의식에서 흔들렸을거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들고...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사람답게 살고... 나로 인해 집안이 행복해지면 그것도 보람이겠구나’ 하면서 며느리로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했어.”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복지시설에 모시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그럼에도 보내기를 망설이는 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의식, 며느리로서 직접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주위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등이 자리하고 있어서 자신의 의향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적 우리나라 문화가 보수적이어서 그런 곳에 모시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는 때이니 정말 힘들어요. 내가 어디 읍에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려고 자식들에게 할거예요.”

며느리들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양가감정 사이에서 배가된 삶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

“나도 사람이거나 억은 가시면 할 때도 있었어. 그대 놓고 남이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치매노인을 버리는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에 대해 며느리들은 공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치매환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여자 전에 대학교수가 치매 어머니를 제주도에 버리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모두 목했잖아요. 손가락질을 했던 양이예요.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이주 원치게). 그것이 이해가 갔었어요.”

며느리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며느리의 역할에 대하여 부응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주체적 자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외형적 표현을 통해 딱딱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드러내면서 드러난 사실에 대한 사회적 죄의식을 ‘hospice care’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표현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때로는 죄책감을 가지면서 내가 이런데 안 되는데....’와 같이 인간적 고뇌와 갈등을 겪고 있으며, ‘나도 그렇게(치매) 될 수 있는데 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애들도 나하는 대로 보고 그대로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와 같이 사회적 관념과 주체적 자아간의 불일치로 인한 심적 불편감을 의식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억압된 며느리의 생활사

유교적인 가족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가족에서는 며느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것이 당연시 됨으로 며느리는 이로 인한 역할긴장과 과중한 부담을 겪게 된다. 특히 한국과 같은 부계가족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칠거지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였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고부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기 시작하였고, 주요한 가족관계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박민자, 1994). 이러한 고부갈등이 야기되었을 때 합의를 통하여 갈등이 해결되기 보다 며느리가 복종하거나 회피하므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김양희, 1993).

“늘 내가 상심하는 것을 이것 못야당하다, 저것이 문제

다 그러면서 시누이등한테 전화해서 애길 퍼트리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건강하실 때도 참 힘들게 했어요. 오죽하면 아프시니까 이제 그런 일 안 하셔서 더 싸움이 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 혼자 죄러이고 떠들면서 중언거리고 기도하고 안간힘을 쓰면서, 참으면서 하다가도 어떤 때 인간적으로 돌아갔을 때 약려워, 그리고 또 왜 안잡냐 하면 이렇게 속상할 때 내가 속상한 것을 당신 때문에 나려거에 많이 속상했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럴 수 있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못 알아듣으니까 불쌍하고...”

가난한 집 10남매의 딸며느리로 힘겹게 살아온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단절되어 토막 난 기억들을 모아 이집 저집 소문을 내고, 아무 데나 가래침 뱉거나 용변을 보는 등의 치매증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주변 사람들의 오해가 견디기 힘들었고 원래 깨끗치 않던 시어머니의 치매증상은 결벽증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또한 평소 사랑이 없는 고부관계로 며느리는 더욱 숨이 막혀 온다고 하였다.

그러는 한편 ‘며느리로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하며 화들짝 놀라 반문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며느리와외의 관계를 평소에 사랑으로 엮어 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며느리에게 머리 잘 해주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정으로 돌볼 수 있게 하려구 해요. 며느리에게는 항상 의무감을 강요하다가 노인이 되어 전적으로 돌봄을 받게 되면 너무 관계가 힘들지요.”

시어머니를 싫어했는데도 외면적으로는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욕을 먹는다(김진명, 1995)고 생각하며 자신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잘 해드리고 싶으면서도 지쳐버리고, 도리를 다하고 싶으면서도 애통한 양가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영원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치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효는 텅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집가던 날부터 20년간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손주며느리의 경우에는 시할머니가 손자, 손부가 바깥 일 할 수 있도록 20년간 헌신적으로 아이를 키워주셨으므로 치매에 걸렸다 하여도 시할머니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할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

이고 있다.

“나도 행여나 덕분에 일 다녀명 받도 사고 시내에 집도 사고 다 해진건데, 남들은 어쩔 상임시년해도 사람이 다 같은 방식으로 상 수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상년 해신가 그냥 상임수다”

치매노인과 며느리 사이의 개인사적 관계는 며느리의 갈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에 간호학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가족간의 ‘열린 대화’가 건강한 가족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 3. 남편의 무관심

남성은 자신의 역할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에게 언제나 명령을 내리며 그 역의 경우는 없다(김진명, 1995).

텍스트 해석의 결과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에게 있어 부부간의 갈등이 치매부모를 돌보는 데 따른 부담 못지 않은 더 큰 부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대는 부담과 고통을 함께 하는 동반자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편은 아내인 며느리의 잘 잘못을 따지는 감독자로 아내인 며느리의 부담을 더 크게 했다.

직업이 교수인 며느리의 경우, 치매 노인이 집을 나가 버려 찾으러 다니거나 노인을 힘들게 돌보는 데도 치매노인의 아들인 남편은 전혀 돕거나 이해도 하지 않고 시부모 돌보기는 며느리의 당연한 일로 규정하고 평가하였다.

“나트 동안에 누가 돌보느냐가 문제였죠. 처음에는 노인학 교에 보냈는데 치매증상이 있어 입원했다 싶어 그 다음 복지관에 보냈지요. .... 애들하고 스케줄 짜서 모셔가고 오고 하는데 남편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치매증상이 없었고 붓 갈아 입지 않고 해요. 한 번 목욕시키려면 싸워요. ... 그 소리를 밖에서 (남편이) 들으면 상심 당했다고 하는데 그게 돼야지...”

아내를 집안 살림 잘 꾸려나가고 자녀교육 잘 시키며 시부모 잘 모시는 역할수행의 도구적인 틀에서 보는 남편의 시각(권희완, 1992)과 아내자신의 역할 기대 차이는 부부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이해 못하고 일만 생기면 무조건 아내 탓으로 돌린다”, “시골에서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더군다나 받아들이고 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권위식이 라든가 그런 게 강하고”, “나는 남자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거나 그런 건 거의 없는...”, “... 그 부분은 그

냥 포기하고 살고 ... 그래서 힘들 때가 더 많고” 등 대상자와의 면담에서 드러나는 남편의 무관심에 대한 불만들은 바로 역할기대에 따른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맡겨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덕목이다. 인간은 사회적 관념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로서 ‘어차피 이것은 내 몫’이라는 며느리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에게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되는 기고.....”라며 며느리 자신 역시도 시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 4. 시댁 식구들의 몰이해

치매 노인은 치매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항상 돌봄이 필요하다. 이러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는 신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로 오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언어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만약 다른 사람이 돌봄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 개인 시간의 부족과 피로의 누적으로 고통을 받는다(이성희 등, 1993; 홍여신 등, 1995).

이러한 고통은 주위 친지의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 부양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때문에 더욱 심해만 가고, 며느리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지 않아 서운함을 겪는다. 특히 주변 가족들의 몰이해는 며느리, 아내, 어머니의 역할 혹은 직장인 역할까지 하느라 다중역할로 지쳐있는 며느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더 소원하게 한다.

“어쩌다 나타나는 시동생, 시누이들이 귀찮으면 우르르 와서 응 씨통을 쪼프리고 ‘우리 어머나 이래 낫을까?’ 하면서 뭐 가지고는... 간호하는 사람의 고통은 들어 보려 하지도 않아요.”

“주위 형제자매들도 언니 힘들다고는 하지만... 상제적으로 뭐 별로 도움이 안되는데”,

예를 들어 더구나 며느리가 몸이 아파 돌볼 여력이 없어 부모를 시설에 맡기려 하자, 자신들은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며느리를 비난하는 시댁식구들의 태도와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시댁식구들의 행태들은 며느리에게 또 하나의 짐으로 다가온다.

도와 달라고 하면 부모가 치매라는 말을 듣고는 아예 문안전화도 끊어버리고, 가족들은 관심도 안 갖고 어쩌다 모셔가서 어머니를 언제 모셔갈려나는 그러한 시댁식

구들의 돌봄 회피는 재충전의 기회마저 주지않아 며느리의 심신을 지치게 한다.

며느리들은 관습의 무조건적 수용, 이해의 노력, 신앙 등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깊이 억압된 억울함과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있었다.

## 5. 점점 미워지는 치매 노인

치매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며느리는 화, 우울, 긴장감, 분노, 조작 당한다는 느낌, 그리고 노인이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노인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가족관계가 나빠지는 등 노인-부양자 및 부양자-가족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한다(권중돈, 1995).

치매노인을 돌보는 어려움은 치매노인과 며느리의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그 부담이 배가된다.

시아머니가 “20년간 한번도 본인 잘못 인정 안하시고 자신이 하는 일은 만사 타박만 하여” 시아머니로 인해 한평생 침묵하며 오해와 타박을 가슴으로 삼켜 안고 살아온 며느리의 경우를 보면, 평소의 좋지 않은 고부관계가 치매증상을 보이는 시아머니를 돌보는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그때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그때 그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셔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나마 위호가 덜 텐데, 저는 서운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소에도 미운 노인이 치매증상을 보일 때 돌보는 며느리의 마음은 이중삼중으로 병들어 간다. 위 며느리는 “간염에 지방간에 혈심증에 온갖 병 다 걸려서” 쉬기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 집에서 쉬어야 된다는데 쉬기 위해서는 직장 다니는 양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차라리 시아머니가 아닌 타인을 돌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저는 내 집에서는 내 어머니는 못타드리겠는데 내가 다른 치매 있는 댁에 가서 돌타드리고 그 댁에서는 우리 집에 오시고 하는 봉사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소리치고 욕하고 때리고... 울고 불고 대접소홀하다고 가혹했다고 날치치는데, 시누이들이 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예의 차리고....”

치매 시아머니는 황폐해진 뉘으로 며느리를 괴롭힌다. 며느리는 과거 시집살이 과정에서 겪었던 고부갈등으로

치매 시아머니를 돌보는 게 더욱 힘들다고 느끼게 되었으며 결국 며느리로 하여금 직장에 다니지 않고 다니는 것처럼 이중적 생활구조를 갖게 까지 하였다.

주위의 이해와 동정도, 도움도 없이 홀로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는 힘들고 원통하기도 하여 모든 것이 치매에 걸린 시부모한테로 집중된다. “이 갈릴 정도로” 점점 미워만 가고 잘 모시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 언어,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다시 미움으로 바뀌곤 하였다.

이렇듯 끝없는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정서의 경험과 신체증상의 표현은 며느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데 이해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솟아오르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기가 어려워졌다. 또 이러한 상황은 자신을 힘들게 하던 치매노인이 “시누이들이 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예의차리고 사위문안까지 하여” 결국 딸들, 아들들의 오해만 쌓이므로써 가족관계는 더 소원해지고 치매노인에 대한 적대감은 점점 쌓여만 갔다. 그래서 한 대상자는 자신이 겪은 심한 고부갈등을 반추하면서 자신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엮어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며느리에게 뭐든 장해주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정으로 돌볼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며느리에게는 항상 의무감을 강요하다가 노인이 되어 전적으로 돌봄을 받게 되면 관계가 너무 힘들지요.”

## 6. 포기적인 삶

한국사회에서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시 되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 속에서 성장하며 학습해 온 며느리에게 며느리 자신도 시부모 모시는 일을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되는” 자신의 역할로 간주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딸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것은 어차피 사회적 덕목이다. 인간은 사회적 관념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로서 ‘어차피 이것은 내 몫’이라는 며느리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에게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되는 기고...”라며 며느리 자신 역시도 시부모 모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서호 분담해야지. 그러면 딱 서운하지. 나는 뭐야. 나는 요집에 부인으로 온게 아니고, 시아머니나 뉘치닥거려하고... 포기하고 살거야. 안 그러면 못살아... 포기하고 살았지.”



그러나 변화하는 가족구조와 가족관계로 전통적인 사회규범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며느리들의 갈등이 커지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이성희 등, 1993). 사회적 규범에 의한 행위가 행위주체의 자발성과 거리가 멀 때 그 행위는 행위주체자에게 부담이요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는 사회적 규범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보다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며느리의 심정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외형상 며느리는 자발적으로 의무를 다하여 사회적 규범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들의 행위 이면에는 암묵적인 사회적 강요(김진명, 1995)의 의미가 숨어 있다. 더구나 직업이 있는 며느리의 경우에도 육아 및 가사뿐 아니라 치매에 걸린 시부모 돌보기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며느리에게 부과되는 것을 볼 때 암묵적인 사회적 강요가 얼마나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인간은 카오스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로고스를 개발시켜왔고, 로고스는 언어의 형태로 가장 잘 포획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를 보면 집단을 지칭하는 '우리'에서 '나'를 지칭하는 언어로 구분하여 표현하지 못하는 만큼 정신적, 문화적으로 집단에 용해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물의 의미 보다 화합물로서 통합되어 존재가치가 유지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며느리는 존재의 독자성을 내세우지 못하고 집단 속에 형태 없이 침잠하게 된다. 인간다운 행위를 즐기며 사는 일을 자동사로 표현한다면 며느리로서의 삶은 자동사가 되지 못하고 타동사가 되어 고역이며 사역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삶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집단작업을 통해 해석학적 순환을 실행하였다.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삶에 관심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논의를 통해 개인의 독단성을 배제하고 가능한 공동의 합의에 이르러자 하였다.

거주지역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며느리 총 13인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경험은 죄책감과 분노, 억압된 며느리의 생활사, 남편의 무관심, 시댁 식구들의 몰이해, 점점 미워지는 치매노인, 포기적인 삶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관념의 영향력은 며느리들로 하여금 다중역할을 수행해 내게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나 대부분의 경우 며느리의 삶을 힘들게 하였다.

고부갈등으로 시달리던 며느리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부담 외에 남편의 무관심과 시댁식구들의 오해와 몰이해로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고 치매노인에 대한 미움도 커져만 갔다. 치매노인의 단절된 기억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오해는 시댁식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하였다. 아내인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지도 위로해주지도 않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 묵시적으로 강요된 의무로 인해 미움의 대상인 치매노인을 돌보는 책임은 전적으로 며느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같은 여성의 입장에 있는 딸들도 현상유지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며느리들의 어려움을 침묵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며느리 자신들도 자신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생각과 그 무게에 억눌려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가운데 존재의미에 대한 지적 성찰과 실천행위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소수의 회생으로 다수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집단주의적 사조가 며느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전통과 명분을 중시하는 관습으로 자신과 자신이 속하는 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정하게 역할을 분담하고자 하는 중추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의 어려움은 타인 지향적인 우리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상의 결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자기해방을 할 수 있는 간호실천이 요구된다. 둘째, 노인연구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특히 며느리의 삶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형식과 구조에 맞추는 해석학적 연구가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의 해석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권중돈 (1994). 한국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사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중돈 (1995). 한국 치매가족연구, 홍익재.  
 권희완 (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 부부관계의 인식 관한 연구, 사회문화연구소, 35-70

- 김귀분, 이경희 (1998). 노인성 치매환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지, 대한간호학회 28(4), 1047-1059.
- 김양희 (1993). 한국가족의 갈등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 김진명 (1995). 굴레 속의 한국여성, 집문당
- 김종국 (1998).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로티의 해체주의에 이르기까지, 제1차 해석학적 연구 익삼 자료집
- 봉민균 (1997). 사회복지 정책론, 학문사
- 양영희 (1992). 만성입원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역할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한 이론적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윤자 (1994).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은정, 하양숙 (1995). 노인성 치매환자 가족의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 간호학논문집, 9(1), 94-105.
- 이광규 (1985). 한국문화의 구조인류학, 서울, 집문당.
- 이성희, 권중돈 (1993). 치매노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 서울특별시 북부 노인 종합복지관 연구보고서.
- 조홍식, 김홍식, 김혜란, 신은주 (1998). 가족 복지학, 서울, 학지사, 통계청자료(1992). 장래인구추계 (1990-2021).
- 최남희 (1992). 간호학의 방법론적 원리와 철학적 배경,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학위 논문.
- 최남희 (1998). 해석학적 연구의 실행,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주최 제1차 해석학적 간호학 연구 익삼(1998.2.9-2.14), 강의 자료.
- 홍여진, 이선자, 박현애, 조남옥, 오진주 (1995). 노인성 치매발생요인과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0(3), 448-58.
- Allen, M. N., Louise, J. (1990). Hermeneutical Inquiry-Meaning and Scope,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2(2), 241-253.
- Bontekoe, R. (1996). Dimensions of the hermeneutic circle, Humanistic Press(New Jersey),
- Diekelmann, N., Allen, D., & Tanner, C. (1989). A Hermeneutic Analysis of the NLN Criteria of the Appraisal of Baccalaureate Programs. In The NLN Criteria for Appraisal of Baccalaureate Programs : A Critical Hermeneutic Analysis, National League of Nursing (Pub. No.15-2253), 3-34.
- Gadamer, H. (1989). Truth and Method, Crossroad Publishing(New York),
- Houlihan, J. P. (1987). Families Caring for frail and demented elderly : A Review of selected finding, Family Systems Medicine, 5, 344-356
- Mishler, E. G. (1986). Research Interviewing - Context and Narrativ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runcho, R. A., & Potashnik, S. L. (1989). Caregiving spouses :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perspective. J. Am Geriatric Society, 37, 697-705.
- Pratt C., Schmall, V., & Wright, S. (1987). Ethical concerns of family caregivers to dementi patients, Gerontologist, 27(5), 632-638.
- Ricoeur, P. (1988). Time and Narrative, 3 vols., translated by Kathleen McLaughlin and David Pellau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monton (1987). Assessing care giver information need : A brief questionnaire,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0(2), 177-180.
- Wilson, H. S. (1995). Family caregiving for a relative with alzheimer's dementia : coping with negative choice, Nursing Research, 38(2), 94-98

-Abstract-

Key concept : Hermeneutic research, Dementia, Lives  
of daughters -in-law

### The Lives of Daughters-in-Law Who Care for Parents with Dementia

*Kang, Hyun Sook<sup>1)</sup>·Go, Keum Ja<sup>2)</sup>  
Kim, Won Ock<sup>3)</sup>·Kim, Eun Sin<sup>4)</sup>  
Khim, Soon-Yong<sup>5)</sup>·Kim, Hyun Li<sup>6)</sup>  
Shin, Soon Ok<sup>7)</sup>·Oh, Sang Eun<sup>8)</sup>  
Won, Jeong Sook<sup>9)</sup>·Li, Chun Yu<sup>9)</sup>  
Jung, Mir<sup>9)</sup>·Choe, Nam Hee<sup>10)</sup>*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lives of the daughters- in- law caring for parents with dementia and participate in their lives through having quality time with them.

Data were collected by depth interviews and interpreted through the hermeneutic circle as follows.

These daughters-in-law have conflict between social custom and subjective self. They had ambivalence toward their demented partents-in-law and were fighting a battle between rationality and emotions in their mind. These daughters-in law and mothers-in- law did not get along and the parents' dementia aggravated the relationships.

They were alienated from their family by the parents with dementia. The indifference of their family especially their husbands, made these subjects live in misery. They cared for the demented mother-in-law with hatred.

Even though they had this yoke, there daughters-in-law were not able to throw off the shackles of convention.

- 
- 1) Department of Nursing, Kyung Hee University
  - 2) Cheju Halla College
  - 3) Kyung Hee School of Nursing
  - 4) College of Medicine,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 5)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 6)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7) Young Dong College
  - 8)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9) Yanbian Medical College
  - 10)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